



질병관리청

# 보도자료

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 
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
보도 일시	2022. 8. 23.(화) 12:00	배포 일시	2022. 8. 23.(화) 08:00
담당 부서 <총괄>	감염병진단분석국 매개체분석과	책임자	과 장 이희일 (043-719-8560)
		담당자	연구관 주정원 (043-719-8521)
담당 부서	감염병정책국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	책임자	과 장 황경원 (043-719-7160)
		담당자	연구관 신나리 (043-719-7162)

## 가을철 쯔쯔가무시균을 전파하는 털진드기 발생 감시 개시

- 전년대비 2개지점 확대한 전국 18개 감시지점 발생정보 제공 -

### 주요 내용

- 전국 권역별 털진드기 발생 감시 개시
  - 22.8.24.~12월(16주간), 권역별로 쯔쯔가무시균(*Orientia tsutsugamushi*) 매개체인 털진드기 발생현황 정보 생산
  -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정보 제공

□ 질병관리청(청장 백경란)은 쯔쯔가무시증(Scrub Typhus)의 감염 위험이 높은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, 주요 매개체인 털진드기의 발생을 감시하는 사업을 8월 넷째 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.

○ 「털진드기 발생감시 사업」은 국민에게 쯔쯔가무시증 감염 예방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전국 털진드기 발생을 주별로 감시하는 것으로,

○ 전국(9개 도, 18개 지역)\*에서 털진드기가 사람과 접촉할 우려가 있는 환경(논, 밭, 수로, 초지)을 조사\*\*하고,

\* 기존 16개 감시지역에서 '22년부터 쯔쯔가무시증 발생이 높은 2개 지역을 추가하여 감시범위 확대 운영

\*\* 전국 14개 대학 및 3개 지자체(강원, 전남, 전북) 보건환경연구원이 감시에 참여



- 감시개시 후 매주 ‘병원체 및 매개체 감시 주간정보’ 등으로 질병관리청 누리집\*을 통해 대국민에게 제공할 예정이다. (붙임1 참고)

\* 질병관리청 누리집 안내 : <http://www.kdca.go.kr>



감시사업에 활용되는 털진드기 채집기(왼쪽) 및 설치 사진(오른쪽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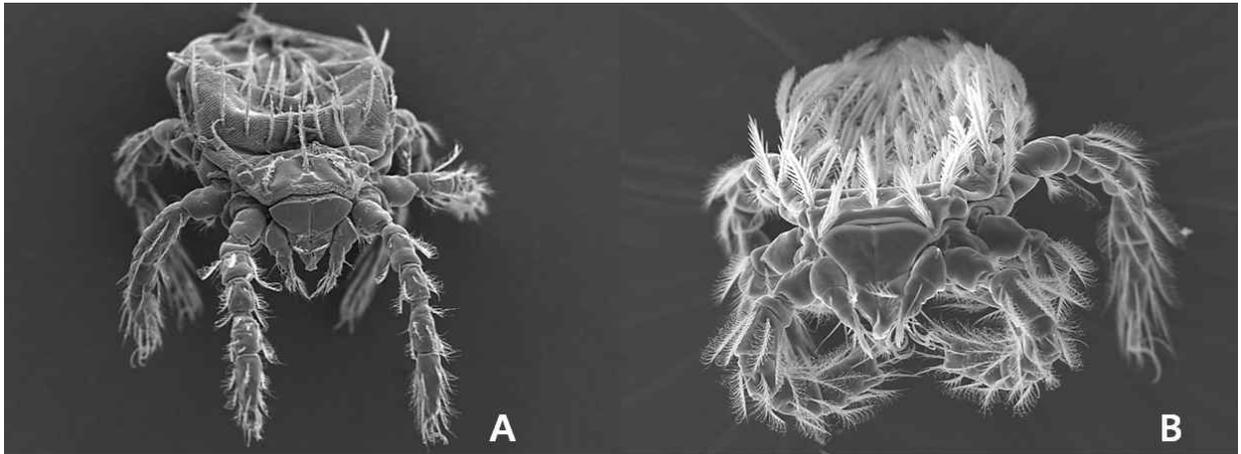
□ 질병관리청은 「2021년 털진드기 발생 정보」도 공개하였다.

○ 털진드기 유충은 여름철에 산란된 알이 초가을(9월 말~10월 초)에 부화를 시작하여 발생 개체수가 증가하고, 늦가을(10월 말)에 가장 많은 개체수 발생을 나타냈다. (붙임2 참고)

○ 국내에서 찌찌가무시균을 매개하는 털진드기는 **활순털진드기**(*Leptotrombidium scutellare*), **대잎털진드기**(*L. pallidum*) 등\*이 있으며,

\* 그 외 수염털진드기(*L. palpale*), 동양털진드기(*L. orientale*), 반도털진드기(*L. zetum*), 사륙털진드기(*Neotrombicula japonica*), 조선방망이털진드기(*Euschoengastia koreaensis*), 들꿩털진드기(*Helenicula miyagawai*)

- 감시 결과, 남부지역에서는 **활순털진드기**, 중부지역에서는 **대잎털진드기**가 우점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. (붙임2 참고)



<쯔쯔가무시균 매개 주요 털진드기> A : 활순털진드기, B : 대잎털진드기

- 감염은 주로 9~10월에 쯔쯔가무시균을 보유한 털진드기 유충에 물린 후 발생할 수 있으며, 주요 증상으로는 발열, 가피(물려서 생긴 딱지, eschar), 반점상 발진, 림프절종대 등을 나타낸다.
- 질병관리청 백경란 청장은 “가을철에는 털진드기의 발생이 증가하므로, 쯔쯔가무시증 예방을 위해 위험환경\*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 해줄 것”을 당부하였다.
  - \* 논, 밭, 수로, 초지 등 야외 지역
- 또한, “털진드기는 유충단계에서만 사람을 물어 체액을 섭취하는데, 그 크기가 육안으로는 식별이 되지 않으므로,”
  - “야외활동 후 물린 자국(가피)이 관찰되거나, 2~3주 이내 발열·발진 등 증상이 나타나면, 쯔쯔가무시증을 의심하고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아야 한다”고 강조하였다.

- <붙임>
1. 2022년 쯔쯔가무시균 매개 털진드기 발생 감시지점
  2. 2021년 쯔쯔가무시균 매개 털진드기 발생 감시 결과
  3. 쯔쯔가무시증 관련 질의응답(Q&A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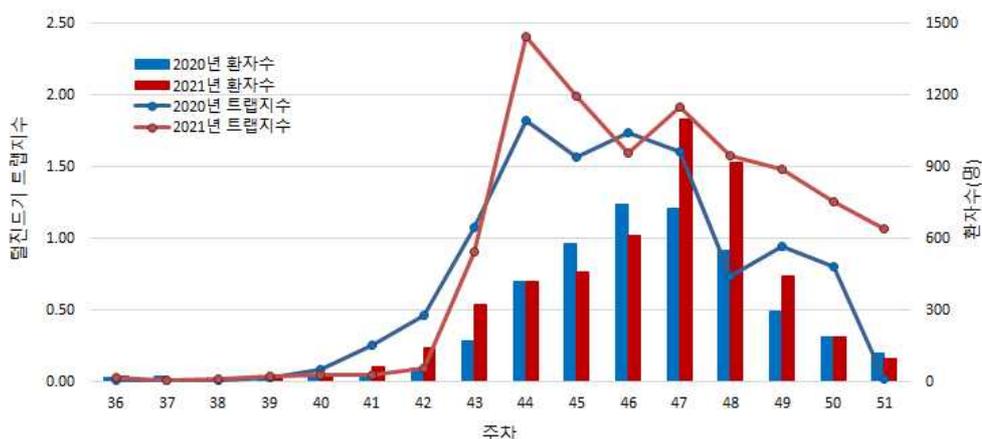
**붙임 2**

**2021년 쯤쯤가무시군 매개 털진드기 발생 감시 결과**

□ 2021년 쯤쯤가무시군 매개 털진드기 주간 감시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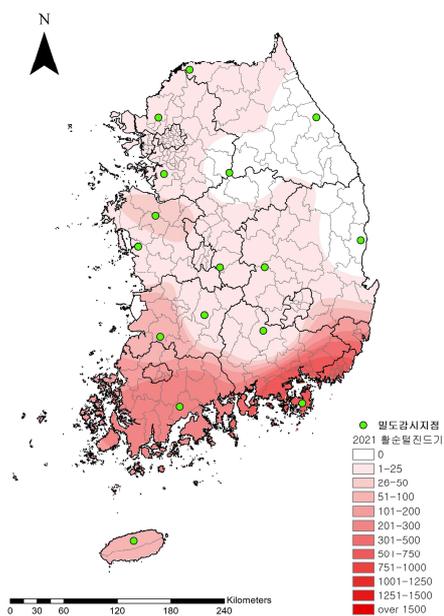
- 털진드기의 주요 활동 시기(9~12월)동안 털진드기의 발생을 감시한 결과, 10월 중순(43주차)에 발생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
- 털진드기 개체수와 환자수 증가는 잠복기(1~3주) 간격을 두고 비슷한 양상을 보임

〈주차별 털진드기 트랩지수\*와 쯤쯤가무시증 환자수(2020~2021년)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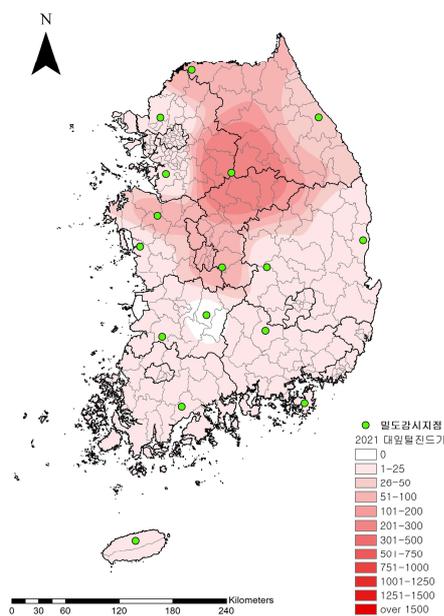


\* 트랩지수(Trap Index) = 트랩당 7일간 채집된 털진드기 개체수(개체수/트랩수)

〈2021년 활순털진드기 발생 분포〉



〈2021년 대잎털진드기 발생 분포〉



## 붙임 3

## 쯔쯔가무시증 관련 질의응답(Q&amp;A)

## Q1. 쯔쯔가무시증은 왜 가을에 많이 발생하나요?

- 쯔쯔가무시증은 병원체에 감염된 털진드기의 유충이 사람을 물어서 발생합니다.
- 환자는 연중 발생하지만, 여름철에 산란 된 털진드기알은 본격적으로 초가을에 부화하고, 알에서 깨어난 유충은 숙주의 체액을 섭취하며 성장을 합니다.
- 따라서 털진드기 유충이 주로 활동하는 가을(9~11월)에 매개체와의 접촉을 통해 쯔쯔가무시증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.

## Q2. 모든 털진드기가 쯔쯔가무시증을 일으키나요?

- 그렇지 않습니다. 우리나라에는 총 59종의 털진드기가 있습니다.
- 이 중 현재까지 쯔쯔가무시균 매개종으로 확인된 것은 총 8종\*입니다.
  - \* 활순털진드기, 대잎털진드기, 수염털진드기, 동양털진드기, 반도털진드기, 사육털진드기, 조선방망이털진드기, 들꿩털진드기
- 그 중에서도 활순털진드기, 대잎털진드기가 주요 매개종입니다.

## Q3. 쯔쯔가무시증의 예방법은 어떻게 되나요?

- 야외작업·활동 시 적정 작업복(긴팔·긴바지, 모자, 목수건, 토시, 장갑, 양말, 장화) 착용, 농경지 및 거주지 주변 풀숲 제거, 풀숲에 옷을 벗어 놓지 않고 휴식 시 돛자리 사용, 야외작업·활동 후 작업복 세탁하기, 귀가 즉시 목욕·샤워를 하는 등 예방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
## Q4. 쯔쯔가무시증 증상과 치료법은 무엇입니까?

- 쯔쯔가무시증은 보통 1~3주 정도의 잠복기를 거친 후 급성으로 발생하며, 두통, 발열, 오한, 구토, 발진, 근육통, 기침 등이 나타나고 털진드기 유충에 물린 부위에 가피가 형성됩니다.
- 감염 초기에 적절한 항생제 치료 시 비교적 쉽게 회복되지만, 단순 감기몸살로 착각하여 치료 시기를 놓치기 쉽기 때문에 주로 가을철에 위의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신속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.